

해남군,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유치 총력

유치 기원 서명운동 2만3000명 동참 등 분위기 고조 기관 등 적극 참여...사회단체·관광객 대상 서명 확대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나선 가운데 유치 기원 서명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범군민 서명운동 결과 현재까지 2만3000여명의 군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한 달간 전개된 서명운동은 군청과 유관기관,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등이 중심이 돼 적극 참여한 결과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인원이 함께 했다.

해남군은 지난 6월11일 민·관·학계가 총망라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 발족과 함께 범군민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단체, 청소년, 관광객 등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시장·축제·각종 행사 등 거리 유치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3월 김영록 도지사와 해남군민과의 대화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도지사 및 농업축산식품부장관을 찾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건의를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해남군의회에서도 도지사 면담 및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 언론인도 유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연구소,



해남군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 붐 조성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해남군 제공)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연구단지를 국제적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20ha 규

모에 총사업비 18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공룡박물관, 워터슬라이드 설치 휴가철 한달간 '특별 체험행사'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특별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박물관 후문 잔디광장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진)

워터슬라이드는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최고 인기 시설로 30m 워터슬라이드와 에어 풀, 유아용 미니 슬라이드 등이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3000원이다. 워터슬라이드에서는 주말마다 수채화 타투, 물풍선 게임, 어린이 노래자랑, 물총 싸움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박물관 내에서도 풍선 달인 박중현의 풍선 묘기를 시작으로 샌드 아트 미술,

버블 미술, 중국 전통 미술인 변검술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박물관 1층 공통체험장에서는 주말마다 공통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오는 29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는 주중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월복 공룡시계꾸미기 등 신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해남공룡박물관은 7~8월 휴관 없이 매일 개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시간씩 연장해 오후 7시까지다.

2007년 개관한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박물관이다. 공룡박물관이 위치한 우항리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돼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항~관매도 직항노선 20일부터 운영

하루 왕복운항 4회로 증편 체류시간 길어 관광객 늘 듯

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진도항에서 관매도까지 직항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항로는 진도항에서 오전 8시40분 출발하는 직항노선과 오후 3시 출발해 창원항을 경유하는 항로가 추가된다.

또 기존 오전 9시50분과 오후 12시10분 출발 노선은 예정대로 운항된다.

특히 기존 하루 2회 왕복운항을 4회로

증편해 오전 8시40분 첫배를 이용하면 체류시간이 최소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관매도 항로는 직항 노선 없이 진도항에서 출발해 조도 창원항을 거쳐 1시간 30분 가량 소요돼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다.

또 기존 하루 2항차 운항되던 관매도 항로는 섬 체류시간이 3시간이 채 안돼 사실상 관광이 어려웠다.

군은 직항 노선을 신규 추가해 운항시간

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4항차 운항함으로써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직항노선 증편으로 19일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진도군의 아름다운 섬인 관매도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매도 직항노선은 오는 8월 말까지 시범 운항되며, 이용객 추이에 따라 10월까지 연장 운항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전복데이' 내일부터 이틀간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장



완도군이 19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전복데이' 행사를 연다.

'세계 수영인과 함께 하는 2019 북날엔 완도 전복'이란 주제로 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한국전복유통협회가 함께한다.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완도산 전복을 판매한다.(사진)

완도 특산물인 명품 광어와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 가공품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할 전복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 완도 수산물 판촉과 함께 전복·해조비빔밥 및 무료 시식 행사도 한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0명에게 전복 2마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할 전복 구매 고객(선착순 500명)에게는 전복장과 전복잡이, 완도자연그대로 미(米) 500g, 자른 미역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신안 등 서해 오징어 '대풍이요'

진도군수협 하루 위판량 4000~5000상자...올들어 31억 매출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요즘은 진도, 신안 등 서해에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

17일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 인근과 신안 만재도·가거도 해역에 '물 반 오징어 반'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서망항에 오징어잡이 어선, 상인, 관광객들이 몰려 들썩이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오징어잡이 어선 10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적당 6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위

판고를 올릴 정도로 어황이 좋다.

서망항 하루 오징어 위판량이 4000~5000상자에 달해 상인과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오징어(사진)가 진도 해역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이후 해마다 여름휴가 절정기인 7~8월 중순까지 전국으로 날개 돌진 듯 팔려나가고 있다.

서망항 오징어 위판액은 한때 120억원을 넘은 적도 있다.

2010년 43억원, 2011년 47억원, 2012년 81억원, 2013년 12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32억원, 2017년 46억원이며 올해 위판액은 지난 16일 기준 31억원이다.

현재 진도산 오징어는 20마리(大) 1상자에 3만5000원~4만5000원(위판금액)으로 값이 싸고 맛이 좋다.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 관계자는 "진도 해역에서 잡은 오징어 신선도가 탁월해 광주, 부산, 서울 등 수도권 수산물 도매상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세일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완도 구현"

김범상 완도경찰서장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최근 제73대완도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범상 서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또 "내부만족이 주민만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담당 완도경찰이 되도록 하겠

다"고 강조했다.

진도 출신인 김 서장은 1994년(간부후보 42기) 경찰에 첫발을 디딘 후,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보안1과 1계장, 광주청 생활안전과장을 역임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